

# 대기업-중소기업 대졸 신입 연봉 큰 격차



▲ 중기 대졸 신입 사원 연봉은 대기업 대비 68%에 불과하다. 사진=삼성전자

대기업의 올해 대졸 신입 초임이 평균 4,130만 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과의 연봉 격차는 1,330만 원에 달했다.

지난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이날 올해 대졸 신입직 초임을 확정한 77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4년대졸 신입직 초임'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대졸 신입 초임은 지난해(4,110만 원) 대비 0.5% 인상됐다.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 초임은 평균 2,800만 원으로, 동일기업의 지난해 대졸 신입 초임(2,790만 원) 대비 0.4% 인상됐다.

대기업 대졸 신입 초임은 공기업보다 높았다. 올해 공기업 대졸 신입 초임은 평균 3,810만 원으로 대기업과 평균 320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연봉을 기준(100%)으로 본다면, 공기업 대졸 신입 초임은 대기업의 92%,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8%에 그치는 큰 연봉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신입 초임은 국내 4년대 졸업을 기준으로 기본상여금 포함, 인센티브 비포함을 기준으로 조사했고, 대기업 147개사, 중소기업 588개사가 참여했다. 공기업 36개사의 올해 대졸 신입 초임은 공시자료(알리오 공시)에 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했다.

조사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올해 8월19~21일, 중소기업 8월13~25일이고, 공기업은 알리오 공시자료를 참고했다.

# 경로우대 연령 기준 상향 추진



▲ 경로우대 기준 연령이 70세 안팎으로 상향 조정될 것을 보인다. 사진=shutterstock

한국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 사업도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조정한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제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현재 경로우대연령 기준선 65세를 상향조정하자는 의미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 이런 인식으로 미뤄보면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해줄 방침이다.

# 작년 한국 출산율0.92명 ... OECD 유일 1명 이하

작년 국내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출생아 감소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출생통계와 6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2만4,100명) 감소했다.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작년 합계출산율 역시 사상 최저치인 0.9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6%(0.06명) 줄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내



▲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했다. 사진=shutterstock

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14만2,66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5만8,425명)과 비교할 때 9.9% 급감했다.

한국은 2018년까지 6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OECD 37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이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지 못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이어져, 올해 연간으로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가 확실히 되고 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